

“주민 생존 위협받는 전남 의료… 대책 마련 절실”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5·끝〉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도서 벽지 많지만 의사수 최저수준
 의정갈등·국립의대 현안해결 시급
 의료 인력 정착 위한 지원 확대를
 지역맞춤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도



수는 1.75명으로, 전국평균인 2.2명에도 못 미친다. 의료 수요는 높지만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전남 유일하게 의과대학 정부에서 국립의대 통령 파면 등 정치다”며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공공의 한 필수 과제다. 더”라고 말했다.

“의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기호(사진) 강진의료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심각한 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료 인력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전남을 '의료 불모지'로 표현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 벽지를 가지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도 가장 높은 곳이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최했다. 그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립의대 설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국립의대 설립 이후 의료 인력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대가 생긴다고 자동으로 의료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며 “피부과·안과 등 인기 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필수 진료과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보장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주거·교육·문화 등의 의료진의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일본의 '자치시대' 사례를 예로 들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의무 근무 기간을 제공해 졸업생의 70%가 지역에 남아 의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참고해 지역 의료인

력을 키우고 붙잡을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강진·목포·순천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평상시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지역 의료원을 특성화·전문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목포의료원은 종합진료 △순천의료원은 산업재해와 재활 △강진의료원은 노인성 질환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특성화와 함께 의료 환경이 개선되면 매년 외부로 빠져나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의료비가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원 활성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의료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이탈과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면 결국 지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힘을 주 말했다.

“도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
가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실행의 문제로 접
근해야 합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민주 국토혁신위 “해남 솔라시도 성공 추진 지원”

김태년 위원장 등 호남권 경청투어
“지역주도 균형발전 대표모델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전라남도의 핵심 사업인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방문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공간혁신을 위한 호남권 경쟁투어'를 가졌다.

이번 경정투어에는 위원회 측에서 김태년 위원장, 김원이·안도걸 상임부위원장, 신정훈 의원, 변창흠 특보단장 등이 참석했고, 황우현 전 서울과기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10명도 함께 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첨단산업과 교육·정주 인프라가 융합된 신개념 미래도시 모델이다.

솔라시도는 약 630만 평에 달하는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 안정적인 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방문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공간혁신을 위한 호남권 경청투어'를 가졌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수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솔라시도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허브이자 RE

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인근 염해농지 및 유희수면
의 태양광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를 위한 변전소 선제 구축 △전력·통신·용
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태년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획하고,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정주 인프라가 어우러진 융복합 신산업 도시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결 상임부위원장은 “솔라시도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센터와 신산업, 청년 인재가 모이는 미래 국토공간혁신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상임부위원장은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핵심 동력원이 될 수 있다”며 “전남 서남권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화추진특별단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낙후 지역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합니다.